

## 하박국네 이야기 2018. 10

E-mail : [kahh1691@hanmail.net](mailto:kahh1691@hanmail.net) 연락처 : 070-4643-7633 (인터넷 전화)  
(855)096-345-5024 / 096-358-6300 (캄보디아)  
카카오ID : kahh0691 후원계좌 : 884-06767-266-01 시티은행 가형호  
502-910658-70507 K E B 하나은행 가형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18-21)



올해 한국은 폭염으로 고생을 하였다는데 이곳 캄보디아는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 많아서 선선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일 예배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는 섬마을 90%가 장기는 5-10년 만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라오스 땀의 붕괴로 더욱더 강물의 수위가 16미터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의 운동장과 교실이 물에 잠겨서 4달간 휴교를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찾고 옆에 있는 사진과 같이 길이었다는 표시로 길옆에 있는 전봇대만 보이고 이곳이 길인지 강인지 모를 정도로 물이 차서 배가 없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물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급하게 섬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쌀과 생활용품 전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기는 부족한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집은 물이 찰 것을 예상해서 높게 지었지만 집 아래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는 곳도 있어서 배가 없는 집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시 병원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마을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어서 섬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이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없이 지나가게 되어 감사하고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학사아이들과 교리공부를 하고 성경공부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이 잡혀지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맞보지도 못하며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학사아이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서 철저하게 자아의 깨어짐이 없이는 말씀이 심령을 쳐서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거듭남이 없이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있는 길썩발과 돌썩발과 가씨발과 같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학사 아이들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일군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알면서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거룩한 삶인데 성도의 최고의 목표는 거룩함인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고 그곳에 분쟁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국 거룩한 하나님을 뵈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물 없는 구름과 같이 거룩한 행위만 있고 능력을 잃어버린 자 껌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는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사막과 같은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 ♥ 주일예배 ♥



라오스에 있는 땀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섬에 90%가 물에 잠겨서 이곳이 섬인지 강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서 예배장소를 여러 번 옮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배장소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배가 없는 경우는 한 시간 넘게 무릎까지 올라온 물길을 걸어서 들어가면 예배시간 2시간 늦게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몇 명의 아이들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 아이들의 해말은 웃음에 모든 피로가 녹아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꺼소편(큰섬)에서는 학교건물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학교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되어서 언덕에 있는 면사무소 뒤쪽에서 예배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섬지역의 아이들의 집이 거의 다 잠기게 되어서 배가 없으면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집에 배가 있는 집에서는 물건을 사러 배를 타고 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깨트메이(작은섬) 지역도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 곳까지 물이 잠겨서 다른 높은 지역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를 한 달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기존에 드리던 예배의 장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절에서도 그동안 물에 잠겨서 절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절에 가기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나와 주는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들이 믿음의 자라나며 가족과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다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도편지에 동기목사님 방문해서 하였던 이야기를 했는데 한분이 간암말기의 상태에서 간식까지 하신상태에서 오셨는데 듣기로는 많이 좋아 졌다고 하였지만 중증인 상태였는데 우리의 사역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셔서 한국에 돌아가셔서 교회건축을 위한 땅 구입을 위해서 헌금모금을 하시기 위해서 앓졸은 몸으로 교회를 방문하고 다니시다가 세 달도 못되어서 소천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세워지지 않고 여러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지방의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온전히 드렸던 것 이었습니다. 땅을 사려고 했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두 배가 비싸고 우기철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땅을 1미터이상 높이 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땅이라 땅값보다 땅을 메우는 경비가 2-3배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인과 협상중이며 또 다른 지역도 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낮은 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 목사님의 귀한 헌신의 헌금이 이 섬 지방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의 모판이요 전진기지로 사용되게 하소서. 계속적으로 땅 구입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마을전도 ♥



아이들 방학을 이용하여 가족과 학사아이들과 함께 마을 전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도를 통하여서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예외로 사람들이 거부반응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순수한 캄보디아 사람들의 정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게 되면 조금 속스러운 목소리로 아멘을 따라하는 모습에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나왔습니다. 또 아내와 딸은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 섬은 농본기때 뿐만 아니라 농본기가 아니더라도 섬에서 나는 송나무 열매를 따서 말렸다가 이 시기에 가서 그것을 팔아 수입을 얻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크고 힘이 있으면 농사일들이나 이러한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기르기에 소를 먹이기 위해서 풀이나



소에게 먹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섬 지방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니지만 그래도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거나 그것을 따서 시장에 파는 일도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다른 섬 지역 사람들보다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니 감사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질 때는 때로는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 ♥ 기도제목 ♥

1.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2. 큰 섬(꺼쏘편) 지역과 작은 섬(꺼트메이) 두 지역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작은 섬(꺼트메이)에 교회와 문화센터가 세워져서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신앙촌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 섬들이 위상을 섬기며 드렸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

3. 다음 주 프춤번에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절에나 조상묘지에 가서 한 해 동안의 복을 빌기 위해 절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절에 가기 때문에 시골지역에는 거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예배를 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학사 아이들과 함께 성경통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통독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4. 중학생들 학사도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중학생은 생활비와 학비가 한 명당 약 75\$ × 4 = 300\$ 이 들어가는데 이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여자 사역자도 보내주셔서 여자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소서. **(중학교부터 학사를 하기위해서 한 사람당 10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한명씩 자매 결연을 하거나 조금씩(만원, 이만원 ...) 후원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여러분의 기도로 씨타 학생이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대에 가기위해 시험 준비하는 중입니다. 대학교 입학 하여서 필요한 전공을 배워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생 여자 나리와 대학생 남자 완다가 새롭게 학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가 한 달에 약 200\$이 들어가는데 모든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6. 다란청년이 성경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며 거듭남의 비밀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란이가 10월 둘째 주부터 토요일, 주일 종일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란이 친구 완다가 주일에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더욱더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다란이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를 부워주셔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소서.

7.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 육간예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요즘에 제가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지난주에는 기침감기 때문에 이 주간 고생을 하였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은, 하원, 하영이가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며 필요한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며, 올해 주 파송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